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하심

메시지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건강한 가르침을 붙잡음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생활함

성경: 딤후 1:3-6, 3:15, 4:6-7, 6:3, 20, 딤후 1:6-7, 12-14, 4:22

I.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행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자신을 표현할 집을 얻으시는 것인데, 이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딤후 1:3-6, 3:15.

- A.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곧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뜻과 목표이다. 하나님의 분배하심, 곧 하나님의 나누어주심은 과정이자 수단이며 이것에 의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분배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다.
- B.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돌레와 요소와 범위와 수단과 목표와 목적이시다.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모든 내용들은 다만 그리스도이시다—마 17:5, 눅 24:44.
- C.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다—눅 24:45, 욥 10:13, 비교 엠 3:9.
- D.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엠 3:16-17 상, 요 10:10, 14:6 상, 고전 15:45 상, 롬 8:2, 6, 10-11.
- E. 신약 사역 안에 있는 인도직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통제하는 계시, 곧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속한 인도직분이다—행 26:19, 잠 29:18.
- F.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약에 있는 빛비추며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 곧 하나님의 경륜의 건강한 가르침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이 삼일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딤후 1:9, 행 2:42, 딤후 1:3-4, 10, 딤후 4:3, 딤후 6:3, 딤후 1:13.
  - 1. '건강한'은 생명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암시한다. 사도들의 견고한 가르침, 곧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생명 공급을 주며 그들에게 자양분을 주거나 혹은 그들을 치료한다. 그 반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다른 가르침들은(딤후 1:3) 다른 이들 안으로 죽음의 씨를 심고 독을 준다.
  -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중심과 목표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건강하지 않다. 하나님의 경륜 이외의 다른 가르침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인격에 대한 진정한 감상과 사랑과 누림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고후 11:2-3.
  - 3.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다른 가르침들은 믿는 이들 가운데 시기와 부조화를 일으켰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가르침 안에 머물라고 하는 사도들의 분부의 결말(목표와 목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다—딤후 1:5, 요 13:34, 갈 5:13-14.
  - 4. 교회의 하락과 배교의 기본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둔 바울의 사역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딤후 1:15-17, 비교 2:17-18, 4:4, 10, 14-16, 엠 1:1, 딤후 1:3-4, 계 2:1-7, 14-15, 20, 3:8.

- G.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보존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지켜야" 한다(직역)—딤후 1:14.
1. 13 절에 따르면 맡긴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건강한 말씀을 맡긴 것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 없으며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 곧 그분이 우리 안에 저장해 두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건강한 말씀을 우리의 존재 안에 맡겨야 한다—딤후 6:20, 골 3:16, 시 119:11, 72, 111, 162.
  2. 건강한 말씀의 본보기를 붙잡는 것은 건강한 말씀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담고 있으며 전달해주는 달콤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충만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다—딤후 1:13, 딤후 4:6.
  3.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롬 8:16),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을 요구한다(딤후 4:7).
  4.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을 통해 그 영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며 우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존재 안에 맡겨진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을 통해 지켜질 것이다—딤후 1:12, 14.

**II. 디모데후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이러한 예방접종을 받고 분배하는 것의 열쇠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딤후 1:6-7, 딤후 4:7-8, 행 6:10, 고전 14:32.**

- A. 경건, 곧 하나님의 표현인 생활은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하심의 결과이며 이러한 분배하심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나타남을 위해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딤후 1:3-4, 3:15-16, 4:7-8, 딤후 1:6-7.
- B.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속한 청사진에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며 사람의 중심은 그의 영이다—속 12:1, 창 2:7.
1. 하늘들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을 갖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잠 20:27, 요 4:24, 고전 6:17, 딤후 4:22.
  2. 하나님께서 그 영이 되시기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온 우주는 공허하며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전 1:2, 3:11, 욥 32:8, 12:10, 고후 4:13, 16-18.
  3.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소홀히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기까지 한다—비교 살전 5:23, 히 4:12, 유 19.
  4. 그릇인 사람은 자신의 영을 사용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영접하여 그 생명이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의 안과 밖으로 강처럼 흘러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로 변화됨을 위해 있었다—창 1:26, 2:7-12, 22, 딤후 4:7-8.
    - a.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 사람의 영이 되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로서 하나님을 기쁨처럼 담을 수 있고 우리에게 빛을 준다—창 2:7, 잠 20:27.
    - b.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람의 영은 부서진 등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분의 회복을 통해 사람의 영은 생생하게 하고 일곱배로 강화된 영으로 거듭났고 재건축되었고 강하게 되었다—요 3:6, 계 4:5, 고전 15:45 하.
    - c. 사람의 존재 중심적인 부분과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사람의 영이어야 한다. 자신의 영에 의해 다스림받고 통제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고전 2:14-15, 3:1, 14:32, 엡 3:16, 벧전 3:4, 단 6:3, 10.
  5.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축하는 것은 성막과 가슴받이로 예표되었으며 하나님의 건축의 열쇠는 우리의 연합된 영이다.
    - a. 성막의 널빤지들을 연결하는 가로대들은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이 사람의 영과 연합하여 화평의 매는 띠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출 26:26-30, 롬 8:16, 엡 4:3.

- b. 신약에서 우리와 동심이 가슴만이 안으로 넣어진 것의 실재는 연합된 영, 곧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 곧 영접하는 영 안에 내주하심이다—출 28:30, 롬 8:4, 14, 고전 2:9-12.
- 6. 신성한 영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심과 둘이 한 영으로 연합된 것, 곧 연합된 영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략적이며 중심적인 중점이다—요 3:6, 4:24, 롬 8:16, 딤후 4:22, 고전 6:17, 딤편 1:4, 고후 4:13.
  - a.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위대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그 영에 따라 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롬 8:4, 갈 5:25, 빌 3:3, 롬 1:9.
  - b.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몸을 만진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 C. '훈련한다'는 말은 강제적인 것을 암시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강해지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강한 습관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의 영을 사용하도록 스스로 강제해야 한다—딤편 4:7.
- D.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다—딤후 1:6-7.
  - 1. 불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사실상 우리의 영은 불이다—눅 12:49-50, 롬 12:11, 계 4:5, 잠 20:27.
  - 2. 구원받은 이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다.
- E.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벧전 3:4, 시 51:10.
  - 1. 능력의 영은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이며 사랑의 영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된 감정을 가진 영이며 맑은 생각의 영은 새로워진 생각을 가진 영이다—딤후 1:7.
  - 2.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거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순수한 양심을 갖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다—딤편 1:19, 3:9, 딤후 1:3, 행 23:1, 24:16, 마 5:8, 시 73:25-26.
- F. 내주하시는 영을 누리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의 비결이다—고후 12:2 상, 빌 4:11-13, 시 91:1, 살전 5:16-18.
- G.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혼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히 4:12:
  - 1.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혼, 곧 우리의 자아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분별하고 부인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마 16:25, 비교 눅 9:25.
  - 2.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롬 2:28-29, 1:9, 8:4, 12:11.
- H.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있는 목표인 하나님의 권익,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개인적이며 굳게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이다—딤후 1:6-8, 딤편 1:3-4, 2:1-3, 8, 왕상 8:48.